

2025 국민이 함께하는 저작권 글 공모전(산문)

제목

'Ctrl+C'의 시대, 가치는 어떻게 흐르는가

15세기 독일 마인츠의 어느 수도원, 한 수도사가 양피지에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 깃펜 끝에 잉크를 묻혀 한 자 한 자 새겨 넣는 그의 노동은 복제가 아니라 신성한 행위에 가까웠다. 하나의 복사본을 만드는 데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렸다. 지식과 이야기는 잉크의 물성(物性)과 양피지의 희소성에 갇혀 있었다. 그것이 당시의 세계였다. 모든 것이 무겁고, 느리고, 고유했다.

오늘날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15세의 개발자는 수백만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단 몇 초 만에 자신의 컴퓨터로 복제한다. 뉴욕의 DJ는 수십 개의 음원을 조합해 새로운 리믹스를 만들고, 도쿄의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2차 창작물을 그려 전 세계 팬들과 공유한다. 'Ctrl+C'와 'Ctrl+V'라는 키 조합은 인류가 수천 년간 지켜온 원본과 사본의 경계를 안개 속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

저작권(Copyright)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열어젖힌 대량 복제의 시대에 태어난 개념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더 많은 창작을 유도한다는 명분은 숭고했다. 그것은 창작이라는 성(城) 주위에 독점이라는 해자(壕子)를 파서, 아무나 그 결실을 훔쳐 가지 못하게 막는 견고한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은 지난 수백 년간 인류의 지적 자산을 축적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엔진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이 모델은 명료했다. 소수의 창작자가 있고, 다수의 소비자가 있었다. 소유권은 명확했고, 경계는 뚜렷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신경망이 행성 전체를 덮으면서, 이 오래된 성채는 기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복제를 쉽게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제라는 행위의 본질을 바꾸었다. 아날로그 시대의 복제는 원본의 열화(劣化)를 동반했지만, 디지털 복제는 원본과 완벽하게 동일한 쌍둥이를 무한히 낳는다. 여기서 저작권 시스템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 희소성을 전제로 설계된 법률이 무한 복제가 가능한 현실 세계를 통제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마차 시대의 교통법규로 자율주행차를 단속하려는 것과 같다.

문화는 언제나 법보다 먼저 움직인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공유와 리믹스는 숨 쉬는 것과 같은 행위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저작권 침해'라고 부르는 행위를 패러디, 오마주, 밈(Meme)이라는 이름의 문화적 참여로 인식한다. 그들에게 영화의 명대사를 이용한 짤방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유희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 창작물은 박물관에 고이 모셔두는 유물이 아니라, 함께 가지고 놀고 변형시키며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레고 블록과 같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성의 법칙과 마주한다. 하나는 기존 산업의 관성이다. 거대 음반사와 영화사, 출판사들은 여전히 19세기에 만들어진 '해자'를 더 깊고 넓게 파는 데에만 몰두한다. 더 강력한 DRM(디지털 권리 관리) 기술,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을 외치지만, 이는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다른 하나는 창작자의 관성이다. 평생 '독점적 소유권'을 믿고 살아온 창작자들은 이 새로운 질서를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낀다. 당연한 불안이다.

그러나 판교의 한 AI 스타트업 대표와 나눈 대화는 나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개발하는 AI 모델은 수십억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 데이터 대부분은 저작권이 있죠. 만약 우리가 모든 데이터에 일일이 허락을 구해야 한다면, AI 기술 발전은 여기서 멈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기여'와 '출처'를 어떻게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핵심을 찌른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창작의 용광로 앞에 서 있다. 낡은 질서는 녹아내리고 있는데, 새로운 질서는 아직 뚜렷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미래의 저작권 논의는 '어떻게 복제를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치를 흐르게 할 것인가'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과거의 부가 석유나 금과 같은 물리적 자원의 '소유'에서 나왔다면, 21세기의 가치는 아이디어와 데이터의 '흐름(flow)'에서 창출된다. 창작물을 가두고 독점할 때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널리 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며,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재창조되는가에 따라 창작의 가치가 결정되는 새로운 경제가 열리고 있다.